

대전환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만듭니다.

- 당·정 합동,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고용형태·근무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근거를 담은 기본 법률
- ◆ (근로자추정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가짜 3.3 계약 등으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강사, 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과 같은 권리 밖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제도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노·사단체, 지역 노동센터 관계자, 전문가 등도 함께 참석하여 패키지 입법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회 기후노동위 김주영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뿐 아니라 소상공인분들도 모두 일하는 사람”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존 법·제도로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근무방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권리 밖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패키지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차관 말씀 참고자료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책임자	과 장	허기훈 (044-202-7761)
		담당자	사무관	김윤지 (044-202-7762)
			주무관	김동형 (044-202-7767)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유나 (044-202-7526)
		담당자	서기관	이재인 (044-202-7544)



붙임1

간담회 개요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권리 밖 노동보호 패키지 입법안」의 입법 취지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국민 간담회 개최

□ **일시** : '26. 3. 31.(화) 10:00~11:00

□ **장소** :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3층 대회의실(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 **참석자**

- (국회) 김주영 의원, 김태선 의원
- (노동부) 차관, 노동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등
- (전문가) 정홍준(서울과기대), 박귀천(이화여대), 김종진(일하는사람연구소)
- (현장) 특고·플랫폼·프리랜서 관련 노사단체(5명), 현장 종사자(3명), 지자체노동센터 및 관련단체(2명) 외 70여명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2	2'	• 사진 촬영	전원
10:02~10:12	10'	• 인사 말씀	김주영·김태선 의원, 차관
10:12~10:42	30'	• 현장 발언	노사단체, 종사자, 노동센터 등(10명)
10:42~10:52	10'	• 후속과제 제언 및 입법안에 관한 소회	전문가(3명)
10:52~10:55	3'	• 입법안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과제	차관
10:55~11:00	5'	• 마무리 말씀	김주영·김태선 의원

* 보도자료 배포 및 전체행사 공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원창준입니다.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시고,
오늘 행사도 함께 준비해 주신
기후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님과
김태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생업의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먼 길 마다치 않고 달려와 주신
현장 종사자와 소상공인분들,
노동공제회, 노동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에 전문적인 식견을 더해주시л
정흥준 교수님, 박귀천 교수님, 김종진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플랫폼이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서비스가 연결되는 편리함 뒤에는
기존의 법과 제도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그에 따른 불안정함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패키지 입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대전환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노동권 보호의 최소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도
일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만큼은
흔들림 없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여러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합니다.
패키지 입법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 보완 조치 등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빠뜨리지 않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국회의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